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1

## “우리도 함께 뛴다”

광주 검도회

# “전국체전 전관왕 다시한번”

## 광주검객들 새 봄을 달린다

“제 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에서 전국체전 사상 최초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금메달을 챙은 광주 검도의 자긍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검도협회 소속 ‘검객’들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사표다.

서석고·조선대·북구청 합동훈련

서석고, 조선대, 광주시 북구청 검도선수들은 지난 제88회 광주전국체육대회에서 정동진 서석고 감독은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시점이 동계훈련의 마무리 기간으로 그동안 다쳤던 체력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동진 서석고 감독은 “광주검도협회 소속 선수들에게 이제 새봄을 여는 3·1절 전국마라톤 출전이 자연스러운 전통이 돼 1년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각오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 해도 역시 조선대학교에서 합

지도 종합우승이라는 기적을 다시 한번 창조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서석고 13명, 조선대학교 20명, 북구청 10명의 검객들은 조선대학교에서 오전 합동 체력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각 학교로 돌아가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봄 풀듯 5km 뛰며 춘계대회 점검

특히 조선대학교 본관 앞 계단오르내리기를 통한 체력훈련은 광주검도협회 소속 선수들에겐 ‘지옥훈련’ 코스다.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두 선수가 협동으로 물구나무에서 오르내리기 등을 하다보면 한 겨울 찬 바람은 어느새 물려나고 굵은 땀방울이 연신 흘러내린다.

특히 광주 검도협회 소속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는 여느 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북구청 검도팀은 서석고·조선대·북구청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검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광주시검도협회 소속 선수들이 새봄을 기다리며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와 조선대학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선·후배로 연结돼 있어 한 가지 기술이라도 더 전수하고 배우려는 열기가 그득하다.

서석고는 조경철·남상하·윤민우(이상 3년)가 절정의 기술을 보이고 있어 전국 정상권을 노르는데 무리가 없다.

조선대학교도 오성훈·이화랑·강전일·오경석·김재형(이상 4년)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역시 2관왕 이상을 노리고 있다.

만형 북구청도 청주시청에서 이적해온 김용철이 가세해 더욱 탄탄한 전력을 갖춰 지난 2007년의 영광 재현에 대한 꿈을 숨기지 않는다.

### 탄탄한 전력 지난해 영광 재현

광주 검객들은 10km나 하프, 폴코스에 출전해도 거뜬한 체력이지만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팀워크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다 춘계대회를 앞두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상을 염려 5km만 참가한다.

이들 검객들의 3·1절 마라톤 출전은 대회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을 시즌 부상 없이 자신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원과 강신국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검객들의 2009년이 3·1절 마라톤과 함께 밝게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8일 오후 서울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09 오넥스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훈합복식 결승전에서 이용대-이효정이 태국 아누그리타야원-보리비치차이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

## 나상욱 생애 첫승 이룰까

### PGA투어 소니 오픈 3R

### 선두 존슨과 3타차 공동 10위

재미교포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이를 연속 타수를 줄이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 사정권에 진입했다.

2004년 시즌 PGA 투어에 뛰어든 뒤 아직 우승이 없는 나상욱은 18일(이하 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천600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치면서 4언더파 66타를 쳤다.

2라운드부터 샷이 달아오른 나상욱은 중간 합계 7언더파 203타로 단독 선두 째 존슨(미국·10언더파 200타)에 3타 뒤진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선두와 타수 차가 얼마나지 않아 나상욱은 작년 이 대회에서 공동 4위에 그쳤던 아쉬움을 씻어낼 기회를 잡았다. 타이틀 방어에 나선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퍼트 난

조에 빠지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중간합계 3언더파 207타로 공동 31위로 떨어졌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화창한 날씨로 변한 하와이 오후 후 섬에서 나상욱은 300야드에 육박하는 드라이버샷과 그린 적중률 78%의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훌을 공략했다.

특히 나상욱은 사흘 동안 평균 퍼트수 27.3개, 그린 적중시 평균 퍼트수 1.67개를 기록하며 안정된 퍼트 실력을 뽐냈다.

나상욱은 “오늘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모두 것이 잘 됐다. 우승이 쉽게 되지 않지만 내일 더 잘치겠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18번홀(파5)에서 11m짜리 이글 퍼트가 아깝게 벗나간 뒤 베리로 셋째날을 마무리했다.

한편 2007년 소니오픈에서 PGA 투어 사상 두번째로 어린 나이(16세)에 커를 통과, 하와이 스타가 됐던 태드 후지카와(미국)는 하루동안 무려 8타를 줄여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6위(8언더파 202타)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 태드도 8타 줄였는데…

### “10타 줄이면 나도 우승”

### 3언더파 공동 31위 최경주 오늘 뒤집기 나서

특히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 했다. 최경주는 “로브웨지로 쳤는데 스핀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라인에서 6m 가량 내려 왔다. 보통 때는 1m 내에 붙는데 이 훌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자 조급해 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주는 “퍼트가 안되면 전체적으로 스윙의 리듬이 빨라진다. 경기가 잘 되는 날은 볼이 보는대로 굴러가는데 오늘은 보는 것과 실제 스트로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보니 15번홀(파4) 그린에서는 어이없는 3퍼트도 나왔다는 것.

하지만 최경주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타만 줄이면 우승입니다”라며 당당하게 카파를 들어갔다.

/연합뉴스

# 이용대-이효정 짹 세계 최강!

‘금메달 남매’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 전기) 조가 코리아오픈 2연패를 이룩했다.

이용대-이효정 조는 18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제2체육관에서 벌어진 2009요넥스 코리아배드민턴 슈퍼시리즈 최종일 훈합복식 결승에서 태국의 아누그리타야원-보라

비치아이클 조를 2-0(21-8 21-7)으로 물리치고 경상에 올랐다.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이 조는 새해에도 최강의 실력을 과시하며 코리아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서늘록 강국의 면모를 이어갔다.

베드민턴협회는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이용대의 파트너를 놓고 고심을 했었다.

21살에 불과한 이용대는 앞으로도 기량이 늘어날 선수지만 27살인 이효정의 경우 2012년에 열리는 런던올림픽까지 과연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 우려됐던 것.

사실 이효정 수준의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체력.

### 이용대-이효정 “올림픽 2연패 도전”

### 2012 런던대회까지 같이 뛴다

여자선수로는 181cm의 장신인 이효정은 큰 키를 이용한 네트플레이가 아주 뛰어나고 드라이버의 각도도 위력적이다. 이용대가 이날 경기 뒤 인터뷰에서 “효정이 누리는 올림픽이 끝난 뒤 실수도 줄어들면서 완벽하게 게임을 리드한다”고 밝혔듯 이효정은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과연 3년 뒤에도 두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받쳐줄지는 미지수다.

일단 이효정은 “10-20초씩 정신없이 빨리 힘을 하다면 숨이 차기도 하지만 이내 체력이 돌아와 경기를 뛰는데는 문제없다.

런던올림픽까지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반면 국가대표팀은 올 해는 이용대-이효정 조합을 계속 기용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2012년이면 이효정의 나이가 서른살이 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선수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 뒤 “만약 이효정이 여자복식을 포기하고 혼합복식만 뛰게되면 체력적인 문제를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큰 감동을 안겼던 ‘금메달 남매’는 이효정의 체력과 의욕만 뒷받침되면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서를 끌어올리고 사상 최초로 혼합복식 2연패에 도전할 전망이다.

최경주는 “전반 9개홀을 끌었을 때는 좋았지만 후반 들어 라인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결국 무리한 샷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 전기) 조가 올림픽 2연패를 다짐했다.

이용대-이효정 조는 18일 2009요넥스 코리아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혼합복식 2연패를 달성한 뒤 런던올림픽까지

같이 뛰겠다고 밝혔다.

베드민턴협회는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이용대의 파트너를 놓고 고심을 했었다.

21살에 불과한 이용대는 앞으로도 기량이 늘어날 선수지만 27살인 이효정의 경우 2012년에 열리는 런던올림픽까지 과연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 우려됐던 것.

사실 이효정 수준의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